인간과 하천 3
River & Culture

시여 정 민 주 | 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시인
(mypoemmylife@hanmail.net)

하천과 우리 설화 2

대동강(大同江)

평양(平壤)에 대동강(大同江)은
우리나라에
곱기로 으뜸가는 가람이지요

삼천리(三千里) 가다 가다 한가운데는
우뚝한 삼각산(三角山)이
솟기도 했소

그래 옳소 내 누님, 오오 누이님
우리나라 섬기던 한 옛적에는
춘향(春香)과 이도령(李道令)도 살았다지요

이편(便)에는 함양(咸陽), 저편(便)에 담양(潭陽),
꿈에는 가끔가끔 산(山)을 넘어
오작교(烏鵲橋) 찾아 찾아가기도 했소

그래 옳소 누이님 오오 내 누님
해 돋고 달 돋아 남원(南原) 땅에는
성춘향(成春香) 아가씨가 살았다지요

-김소월, 춘향(春香)과 이도령(李道令)

전설적인 상상력과 설화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는 이 작품의 첫마디에서 잠시 머무르는 평양의 대동강이, 우리가 만나 볼 두 번째 강변설화의 근원지가 되겠다. 한반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강이자 고조선, 발해, 백제 등 많은 건국신화의 주 무대가 되었던 대동강 유역에 얽힌 설화를 여기 소개한다.

봉이 김선달[1)]

김선달이 대동강가 나루터에서 사대부집에 물을 길어다 주는 물장수를 만났을 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물장수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얼큰하게 한잔을 사면서 내일부터 물을 지고 갈 때마다 내게 한 닢씩 던져주게나 하면서 동전 몇 닢씩을 물장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이튿날 의관을 정제하고 평양성 동문을 지나는 길목에서 의젓하게 앉아서 물장수들이 던져주는 엽전을 헛기침을 하면서 점잖게 받고 있었다.

이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수군대며 살피고 있었다. 이때 엽전을 내지 못한 물장수가 선달로부터 호되게 야단을 맞고 있었다. 이를 본 한양인들은 대동강물이 선달 것인데 물장수들

1) 이태교(1991), 「재미있는 물 이야기」, 현암사

이 물값을 내지 못하게 되자 호되게 야단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여 내일부터는 밀린 물값까지 다 지불하여야 한다고 엽전 준비에 야단이었다.

이를 참다 못 한 한양상인들은 어수룩한 노인네 하나 다루지 못할 것인가 하면서 장수꾼들이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꼬드겨 주막으로 모시게 된다. 술잔이 오가고 물의 흥정이 시작되었다. 선달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것이므로 조상님께 면목이 없어 못 팔겠다고 버티면서 이를 물려줄 자식이 없음을 한탄까지 하였다.

한양상인들은 집요하게 흥정을 했다. 거래금액은 처음에는 1천냥이었다. 2천냥, 4천냥으로 올라가 결국 4천냥에 낙찰되었다. 당시 황소 60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당시의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품 명: 대동강(대동강)
소유자: 봉이 김선달
상기한 대동강을 소유자와의 정식 합의하에 금년 5월 16일자를 기해 인수함을 증명함과 동시에 천하에게 밝히는 바이다.
인수자: 한양 허풍선
인수금액: 일금 4천냥
인도자: 김선달

선달은 못내 도장 찍기가 서운한 듯 도장 찍기를 주저한다. 그러자 상인들은 졸라대기 시작하여 결국 계약이 체결된다.

이것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한양상인들에 팔아먹은 전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달은 평생 재산은 모으지 못했다고 한다. 워낙 풍류와 시를 좋아하고 어려운 서민을 보면 양반, 상인, 종교인들을 골탕 먹이고 뺏은 돈은 서민들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이란다.

옥단춘전(玉丹春傳)[2]

"여봐라 김진희야! 너는 나를 자세히 보라. 나 이혈룡을 지금도 모르겠느냐. 천하에 몹쓸 김진희 놈아. 너와 내가 전일에 사생동거를 맹세하고 공부할 적에, 성은 서로 다를망정 대대로 친구의 두 집안이요 그 정의를 생각하면 동태동골인들 이에서 더하겠는가? 그 시절에 우리가 맹세하기를 네가 먼저 귀하게 되면 나를 살게 해 주고, 내가 먼저 귀하게 되면 너를 살게 해 달라고 네 입으로 맹세했지 내가 먼저 하자 했더냐. 마침 네가 먼저 등과하여 평양 감사로 갔다는 소문을 듣고 옛일을 생각하여 태산같이 맺은 언약[금석지약(金石之約)]이 있었기에 혹시나 도와줄까 하고 너를 찾아 평양까지 왔었다. 그러나 너에게 통자도 못하고 여러 날을 묵다가 노자도 떨어지고 여관 주인도 가라고 박대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기갈이 심해서 입은 옷을 벗어 팔아서 밥을 사먹으니 이도 한때뿐이었다. 거지꼴로 전전걸식(轉轉乞食) 다닐 적에, 네가 마침 대동강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논다는 소문을 듣고, 그 날 너를 만나볼까 하고 근근이 틈을 타서 네가 노는 근처를 찾았었다. 배반이 낭자하고 음식이 푸짐하고 풍악이 굉장할 제 굶주린 내 구미가 얼마나 동했겠느냐. 네가 그 때 먹고 남아 버리는 음식이라도 조금만 주었으면 너도 생색내고 나도 좋았을 것을, 너는 나를 모른 체하고 미친놈이라고 배에 실어다가 대동강 물속에 넣어 죽이라 했으니 그 무슨 까닭이냐. 이 악독한 김진희 놈아! 바른대로 고하여라!"

- 추후 평양도 암행어사가 된 이혈룡이 옥단춘(김진희)에게 한 말

조선 숙종 때 두 재상 김정과 이정은 각각 같은 나이의 진희(眞喜)와 혈룡(血龍)이라는 아들을 두었다. 진희와 혈룡은 동문수학하며 우의가 두터워져 장차 서로 돕고 살기로 언약한다. 그 뒤 김진희는 과거에 급제하여 결국 평안감사가 되었으나, 이혈룡은 과거를 보지 못하고 노모와 처자를 데리고 가난하고 쓸쓸하게 살아간다.

그러던 중 이혈룡은 평양감사가 된 친구를 찾아가지만 만나지 못하고 걸식을 하다가, 하루는 연광정(鍊光亭-대동강변에 있는 정자로 관서팔경의 하나)에서 평양감사가 잔치를 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찾아 간다. 그러나 김진희는 이혈룡을 박대하

2) 이완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http://www.seelotus.com

면서, 사공을 불러 그를 죽이라고까지 한다.

이때, 옥단춘이라는 기생이 이혈룡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사공을 매수하여 혈룡을 구하여 집으로 데려와 가연을 맺는다. 옥단춘은 혈룡의 식솔들도 보살핀다. 혈룡은 옥단춘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평안도 암행어사가 되어 걸인행색으로 평양에 간다. 연광정에서 잔치하던 김진희가 이혈룡이 다시 온 것을 알고는 재차 잡아 죽이라고 하자, 어사출도를 하여 김진희의 죄를 엄하게 다스린다. 그 뒤 혈룡은 우의정에 올라 옥단춘과 행복한 삶을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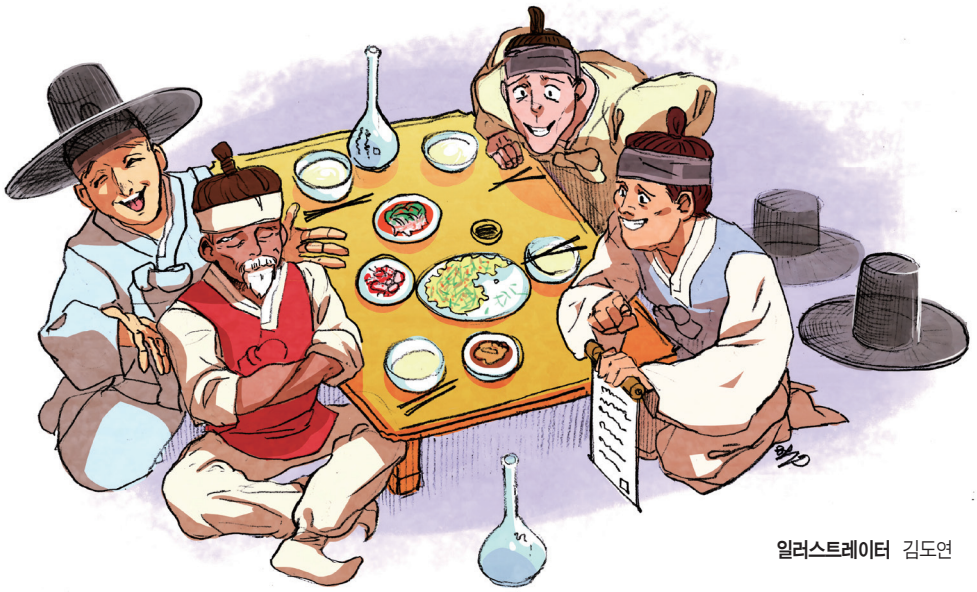
을밀대야 부벽루야[3)]

금수산(모란봉) 을밀봉 아래에는 을밀대(乙密臺)가 있다. 을밀대는 6세기 중엽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북쪽 장대(將臺)로 세운 정자로, 이름의 유래로는 먼 옛날 을밀선녀가 이곳의 경치에 반해 하늘에서 내려와 놀았다는 설화가 있고, 을지문덕 장군의 아들 을밀 장군이 이곳을 지켜 싸웠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모란봉아 을밀대야 네 모양이 그립구나. …대동강 부벽루야 뱃노래가 그립구나"라는 유행가 가사 속에 남아 있는 부벽루는 평양시 중구역 금수산 모란봉 동쪽의 깎아지른 청류벽 위에 서 있는 정자다. 본래 393년에 창건된 영명사의 부속 건물로 영명루라고 불렸는데, 12세기에 이르러 '대동강의 맑고 푸른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정자'라는 뜻에서 부벽루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 연광정과 부벽루에는 평양 기생 계월향이 그녀가 사모했던 김옹서 장군으로 하여금 왜장의 목을 베게 한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부벽루와 관련한 『택리지』의 기록을 보자.

정자 북쪽에는 청류벽이 있고, 벽이 끝나는 곳에 부벽루가 있는데, 바로 성 모퉁이 영명사 앞이다. 명종 때 하곡(荷谷) 허봉이 유생으로 있을 때인데, 벗들과 함께 부벽루에 놀러 가서는 감사의 사위와 약속하고 누 위에서 기생과 풍악을 크게 벌였다. 감사 부인은 그 사위가 기생을 끼고 향락하는 것을 노여워하였다. 감사를 부추겨 졸개를 보내서 여러 기생을 다 잡아 가두어버렸다. 하곡은 낭패를 당하고 돌아와서 「춘유부벽루가(春遊浮碧樓歌)」를 지어서 감사를 조롱하였다. 이 글

3) 신정일(2012),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6 - 북한」, 다음생각



일러스트레이터 김도연

이 사람들에게 일시에 전해지자 감사는 이 때문에 세상의 버림을 받았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 허봉은 동인의 선봉이 되어 서인과 대립하게 되고 탄핵하였다가 종성에 유배되었다. 이듬해에 풀려난 허봉은 정치의 뜻을 버리고 온 나라를 떠돌아다니다가 1588년 서른여덟 나이로 금강산에서 세상을 떠났다.

역사와 함께 한 우리 술, 국주 문배주 설화[4]

대동강 동쪽으로는 끝없는 산이 이어지고,
성 한쪽으로는 강무리 질펀하게 흘러가는데
-고려중엽 시인 김기원, 미완성 시

문배주의 역사는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하들은 왕에게 앞 다투어 좋은 술을 진상하여 벼슬을 얻게 되었는데 그 중한 가문의 술이 문배주였다고 한다. 고려 중엽의 시인 김기원에 얽힌 문배주 설화도 흥미롭다. 대동강변 연광정에서 문배주를 마시며 흥을 돋우던 김기원이 시 한 자락을 운필하다가 한숨을 돌리며 기생에게 문배주를 따를 것을 명하고서 붓을 멈추었는데 문배주 맛이 워낙 좋은지라 동석한 시인과 화가들이 이미 다 마셔버린 후였던 것. 술이 다 떨어졌다고 하자 김기원은 '술이 떨어지고 없으니 시흥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붓을 던져버렸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이 시는 결구 없이 영원한 미완성 시로 남게 되었다는 얘기다. 문배주가 가진 맛과 향의 뛰어난 감흥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랑받았던 술이, 훗날 살아남을 것을 걱정하며 겪어야 했던 우여곡절은 우리 민족의 아픔과 고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했다. 한 가문의 고집과 노력이 없었다면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를 우리의 술이다.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자기네 것이라고 말한 건, 미사일도 핵도 아니었어요. 오직 술, 문배주 하나였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 방문 때 가지고 간 문배주를 맛보고는 김정일이 그랬다지요. '원래 문배주는 평양 대동강 일대 주암산 물로 만들어야 진짜'라고. 어떻게 평양에서 만들던 술이 남한의 국주가 되느냐는 거지요."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 방문 때 문배주를 가져간 건 우연이 아니었다. 1990년 남북총리회담을 위해

4) 매거진, 「The BC」, 2012년 09월호.

서울을 방문한 북한 총리가 문배주를 마시고는 그 맛이 좋다고 말한 일이 있다. 북한 방문단들 사이에 문배주는 그야말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그 후 각국 정상회담이나 국제적 파티에서 문배주는 국주로서 역할을 다하며 자리를 빛냈고 한국을 알리는 술로 진가를 발휘했다. "그런데 아직도 문배주가 국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중요 무형문화재라는 건 국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유형문화재인 남대문이 국보 1호인 것처럼, 우리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요. 남대문이 국가의 상징이듯, 문배주는 우리술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1986년 문배주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3대 이경찬 옹이 기능보유자로 선정되었고, 1995년 4대째를 잇는 그 역시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아들 5대 이승용 씨가 비법을 전수받아 이어가고 있지만 문배주는 아직 낯설다. "술은 문화의 척도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국주라는 게 있는 거죠. 대중적인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든 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술은 문화를 담고 있어야죠."